

자이스토리



중학
국어

문해력 어휘 2



정답 및 해설

DAY 01	24	DAY 09	32	DAY 17	40
02	25	10	33	18	41
03	26	11	34	19	42
04	27	12	35	20	43
05	28	13	36	21	44
06	29	14	37		
07	30	15	38		
08	31	16	39		

마무리 복습 테스트
45, 46
쉬어가기 정답 47, 48



DAY 01

어휘 실력+문해력 완성 테스트 정답

▶ 문제편 p. 14~16

- 01 금지옥엽 02 성차별 03 언론 04 ㉠ 05 ㉡ 06 ㉢
07 4531 08 과밀화 09 비정부 기구 10 규제 11 부실
12 폐단 13 약육강식 14 남용 15 비옥 16 ㉤ 17 ㉦
18 ㉧

08 빈칸에는 '특정 도시에만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 '과밀화'가 들어가야 한다.

09 빈칸에는 지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가리키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개별 국가를 뛰어넘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만든 비영리 조직'을 의미하는 '비정부 기구'이다.

10 '신호 위반 단속과 음주 운전 단속'은 운전자들이 난폭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을 의미하는 '규제'이다.

11 실속이 없고 허술한 경영으로 인해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내용이 실속이 없고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의 '부실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부실'이다.

12 그동안의 부정적인 현상을 없애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을 의미하는 '폐단'이다.

13 빈칸에는 '강한 동물들이 살아남는' 것과 관련된 법칙을 가리키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번영하거나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끝내는 멸망됨을 이르는 말'인 '약육강식'이다.

14 첫 번째 문장은 소화제를 함부로 많이 먹었다는 뜻이고, 두 번째 문장은 권력을 함부로 썼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쓰다.',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하다.'라는 의미의 '남용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남용'이다.

15 첫 번째 문장은 거칠던 땅을 농사지을 수 있을 만큼 기름지게 만들었다는 뜻이고, 두 번째 문장은 땅이 좋아 농사가 잘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땅이 걸고 기름지다.'라는 의미의 '비옥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비옥'이다.

16 정답 ㉤

제시된 글에서 '사소한 법일지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알맞지 않은 내용이다.

>오해 오답 ?

- 제시된 글에서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했으므로,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 제시된 글에서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주는 수단'이라고 했다.
- 제시된 글에서 사람은 누구나 '법의 보호와 규제를 받는다.'라고 했다.
- 제시된 글에서 '법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 벌을 받게 되는지가 제시되어 있다.'라고 했다.

17 정답 ㉢

윗글에 제시된 인권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해 오답 ?

- 윗글에서 인권의 첫 번째 내용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생활을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 윗글에서 인권의 첫 번째 내용으로 '인간은 건강과 생명, 자유를 지킬 권리가 있다.'라고 했다.
- 윗글에서 인권의 세 번째 내용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과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 윗글에서 인권의 두 번째 내용으로 '인간은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다.

18 정답 ㉣

㉠은 인종이나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성차별 발언을 들은 D의 상황에서는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오해 오답 ?

- 인권의 첫 번째 내용인 '건강과 생명, 자유를 지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인권의 네 번째 내용인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인권의 세 번째 내용인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인권을 행사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

DAY 01 어휘력 뽐뿌 확인 문제 정답

▶ 문제편 p. 17

- 01 거죽 02 가없는, 가엸은 03 금세 04 걸음, 거름
05 겨누는

DAY 02

어휘 실력+문해력 완성 테스트 정답

▶ 문제편 p. 20~22

- 01 방치 02 진화 03 고갈 04 ㉠ 05 ㉡ 06 ㉢
07 ㉣ 08 ㉤ 09 ㉥ 10 생사존망 11 유출 12 황량
13 재활, 감각 14 유출 15 영양소, 섭취 16 온실 효과
17 면역 18 적자생존 19 감각 20 고갈되다 21 ㉦
22 ㉧ 23 ㉨

10 형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살아서 존재하는 것과 죽어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생사존망'이다.

11 바다에 산업 쓰레기를 흘려 버린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밖으로 흘려 내보내다.'라는 의미의 '유출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유출'이다.

12 산이 까만 재만 남은 황폐한 모습이었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황폐하여 거칠고 쓸쓸하다.'라는 의미의 '황량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황량'이다.

13 다리를 다친 은주가 이를 극복하는 치료를 통해 무더진 자극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신체장애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함.'을 의미하는 '재활'과 '눈, 코, 귀, 혀, 살갗을 통하여 바깥의 어떤 자극을 알아차림.'을 의미하는 '감각'이다.

14 그 선수가 상대 팀이 알면 안 되는 정보를 상대 팀에게 알려 주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를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내보내다.'라는 의미의 '유출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유출'이다.

15 편식을 하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골고루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몸을 구성하거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분이 있는 물질'인 '영양소'와, '생물체가 양분 따위를 몸속에 빨아들이다.'라는 의미의 '섭취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섭취'이다.

16 빈칸에는 '한겨울에도 기온이 영상 20도를 기록하는 것'과 관련된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대기가 태양으로부터 온 지구의 열을 대부분 흡수하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둠으로써 지구 표면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작용'인 '온실 효과'이다.

21 정답 ②

2문단에서 '우리 몸은 감기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체온을 높여 바이러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라고 했다. 즉, 감기에 걸렸을 때 체온이 높아지는 이유는 감기 바이러스가 내뿜는 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체온을 높이기 때문이다.

오해 오답 ?

- ① 1문단에서 '뇌에서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간뇌'라고 했다.
③ 1문단에서 '우리 몸은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항상성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④ 1문단에서 '뇌에서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간뇌는 ~ 체온의 변화가 느껴지면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라고 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이 체온을 조절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는 과정에 신경과 호르몬이 관여함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우리 몸은 감기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 체온을 높여 바이러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라고 했다. 즉, 우리가 열이 나는 이유는 외부의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한 것과 관련이 있다.

22 정답 ③

문맥에 따르면, ㉠이 약해지면 감기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와 그 수를 늘려 우리가 감기에 걸린다. 즉, ㉠은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 들어갈 단어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몸속에 들어오면 그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 다음에는 그 병에 걸리지 않게 된 상태. 또는 그런 작용'을 의미하는 '면역'이다.

23 정답 ⑤

3문단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간뇌는 감기 바이러스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 몸의 기준 온도를 36.5℃보다 높게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체온을 조절한다.'라고 했다. 즉, 감기에 걸려 열이 나는데도 춥고 몸이 떨리는 이유(㉡)는 감기에 걸리면 간뇌가 몸의 기준 온도를 평소보다 높이기 때문이다.

오해 오답 ?

- ①, ②, ④ 뒷글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③ 감기 바이러스는 간뇌가 아닌 우리 몸속에 침입하며, 감기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몸의 기준 온도가 높아진다.

DAY 02 어휘력 확인 문제 정답

▶ 문제편 p. 23

- 01 걸잡을 02 걷잡을, 달라지기 03 틀리지 04 넘어
05 곤욕

- 01 도굴 02 재현 03 향유 04 ㉠ 05 ㉡ 06 ㉢
07 색깔 08 공생 09 복구 10 세계화 11 풍류 12 안목
13 구상 14 대중성 15 허례허식 16 가로 (1) 다재다능
(2) 색채 (3) 구상하다 세로 (1) 다채롭다 (2) 공유하다 17 ㉤
18 ㉣ 19 ㉠

07 '물체의 거죽에 나타나는 특유한 빛'을 의미하는 '색채'와 바뀌 쓰기에 알맞은 단어는 '색깔'이다.

08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을 의미하는 '공존'과 바뀌 쓰기에 알맞은 단어는 '서로 도우며 함께 삶'이라는 의미의 '공생'이다.

09 '원래대로 회복하다.'를 의미하는 '복원하다'와 바뀌 쓰기에 알맞은 단어는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다.'라는 의미의 '복구하다'이다.

10 비행기 등의 교통 기술과 인터넷이라는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나라 간의 물리적·문화적 교류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졌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세계 여러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임.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을 의미하는 '세계화'이다.

11 빈칸에는 산과 바다를 다니며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또는 그렇게 노는 일'을 의미하는 '풍류'이다.

12 영근이가 좋은 가구를 골라내는 진호의 능력을 믿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문과 학식'을 의미하는 '안목'이다.

13 그가 생각해 낸 이야기에 대한 평가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예술 작품을 창작할 때, 작품의 중심이 될 내용이나 표현 형식 따위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하다.'라는 의미의 '구상하다'를 문맥에 맞게 쓴 '구상'이다.

14 사람들이 그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일반 대중이 친숙하게 느끼고 즐기며 좋아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 '대중성'이다.

15 쓸데없이 형식만 갖추는 절차를 줄이라는 의미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형편에 맞지 않게 결만 번드르르하게 꾸밈. 또는 그런 예절이나 법식'을 의미하는 '허례허식'이다.

17 정답 ㉤

제시된 글에서 '쇼핑 중독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만족감과 쾌감을 얻'지만, '이 기분은 잠시뿐이며, 만족감이 사라지면 이내 우울감, 긴장감 등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즉, 쇼핑 중독은 물건을 산 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고칠 수 없다.

>오해 오답 ?

- 제시된 글에서 '자꾸 물건을 사는 것을 우리는 '쇼핑 중독'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 제시된 글에서 쇼핑 중독인 사람들은 '만족감이 사라지면 이내 우울감, 긴장감 등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 제시된 글에서 쇼핑 중독인 사람들은 '굉장히 사고 싶다는 마음과 사서는 안 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라고 했다.
- 제시된 글에서 쇼핑 중독인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전에 마음 속으로 갈등을 겪지만, '결국 '이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물건을 사게 된다.'라고 했다.

18 정답 ㉣

윗글에서는 서로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공존하는 박테리아 1과 2의 경우를 제시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경쟁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경쟁하는 각박한 세상일지라도 모두 조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박테리아의 사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공존'이라는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오해 오답 ?

- ㉠, ㉤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다.
- 윗글에서는 박테리아 1과 2가 경쟁하는 모습이 아닌 공존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 박테리아 1과 2는 서로의 것을 욕심내지 않으며 공존하고 있다.

19 정답 ㉠

문맥상 ㉠에는 '공간과 자원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서로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은 '서로 도우며 함께 삶.'이라는 의미의 '공생'이다.

DAY 03 어휘력 뽐뿌 확인 문제 정답

- 01 드러냈다 02 매어 03 번복 04 버르고 05 부쳤다

DAY 04

어휘 실력+문해력 완성 테스트 정답

▶ 문제편 p. 32~34

- 01 실사구시 02 감지 03 일신월성 04 ㉠ 05 ㉡
06 ㉢ 07 ㉣ 08 ㉤ 09 ㉥ 10 방출 11 첨단 12 계량
13 관측 14 추출 15 작용 16 분해 17 합성하다
18 가열하다 19 ㉦ 20 ㉧ 21 ㉨

07 빈칸에는 '석탄과 구리 등'이 무엇인지 가리키는 말이 들어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광물'이다.

08 새로 나온 제품에 수준이 높은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시대 사조, 학문, 유행 따위의 맨 앞장'을 의미하는 '첨단'이다.

09 인류는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서 빠르게 발전하였는데, 그러한 기계를 움직이려면 어떠한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자연에 있는 에너지 또는 전기 에너지를 쓰기 위하여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꾼 것'을 의미하는 '동력'이다.

13 전문가들이 월드컵 경기의 결과를 예측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잘 살펴보고 그 장래를 헤아리다.'라는 의미의 '관측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관측'이다.

14 글에서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뽑아내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전체 속에서 어떤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내다.'라는 의미의 '추출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추출'이다.

15 어린아이의 성격이 이루어지는 데 부모의 영향이 크게 미친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치다.'라는 의미의 '작용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작용'이다.

16 그가 카메라를 가방 속에 정리하여 넣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말로 나누다.'라는 의미의 '분해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분해'이다.

17 '분해하다'는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말로 나누다.'라는 의미이다. 이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둘 이상의 것을 합쳐서 하나를 이루다.'라는 의미의 '합성하다'이다.

18 '냉각하다'는 '식혀서 차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이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어떤 물질에 열을 가하다.'라는 의미의 '가열하다'이다.

19 정답 ③

1문단에서는 지문의 개념과 특성, 2~4문단에서는 지문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지문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윗글을 썼다고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①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② 1문단에서 '지문은 손가락 안쪽 ~ 흔적을 의미한다.'라면서 지문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윗글에서 지문의 다양한 형태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④ 2문단에서 지문과 마찰력과의 관계를 밝혀낸 영국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문의 기능에 관련된 내용일 뿐, 윗글을 쓴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윗글에 따르면, 프랑스 과학자들의 최근 연구를 통해 지문의 역할이 제대로 밝혀졌다.

20 정답 ④

1문단에서 '지문은 한번 생겨나면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왜 오답?

- ① 1문단에서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 지문을 이용한다.'라고 했다.
② 3문단에서 '지문이 있으면 물체의 진동을 더 섬세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했다.
③ 2문단에서 '영국의 한 연구팀이 실험을 한 결과, 지문이 ~ 마찰력을 3분의 1이나 줄인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했다.
⑤ 4문단에서 '지문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해야 첨단 로봇의 손이나 의수의 기능을 사람의 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했다.

21 정답 ②

㉠ 뒤에 이어지는 2문단과 3문단에서는 지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내용은 '사람의 손끝에는 왜 지문이 있을까'이다.

>왜 오답?

- ① 1문단과 4문단의 내용을 통해 지문이 경찰 수사, 첨단 로봇의 손이나 의수 개발 등의 분야에 활용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다.
③ 1문단과 관련된 내용일 뿐,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다.
④, ⑤ 4문단과 관련된 내용일 뿐,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다.

DAY 04 어휘력 확인 문제 정답

▶ 문제편 p. 35

- 01 배어 02 베어 03 썩었다 04 삭이는 05 썩히는지
06 세웠다

01 ② 02 ④ 03 ① 04 왜곡 05 분투 06 명승고적
07 ㉠ 08 ㉠ 09 ㉠ 10 탄압 11 반성하는
12 배제했다 13 동원 14 봉쇄 15 소멸 16 도래
17 종묘사직 18 제국주의 19 고군분투 20 ① 21 ④ 22 ②

07 세현이의 주장에 반대하는 근거를 대기가 어렵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를 의미하는 '반증'이다.

08 그가 자신이 세운 가정이 맞는지 밝혀내기 위해 실험을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을 의미하는 '가설'이다.

09 맞는지 틀린지 밝혀낼 수 없는 일을 근거로 내세울 수 없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을 의미하는 '입증'이다.

10 '권력이나 폭력으로 남을 꼼짝 못 하게 강제로 누름.'을 의미하는 '압제'와 바뀌 쓰기에 알맞은 단어는 '권력이나 무력 따위로 억지로 눌러 꼼짝 못 하게 함.'이라는 의미의 '탄압'이다.

11 '성찰하다'는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다.'라는 의미이므로 '반성하다'로 바뀌 쓸 수 있다.

12 '파들리거나 거부하여 밀어 내치다.'를 의미하는 '배척하다'와 바뀌 쓰기에 알맞은 단어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하다.'라는 의미의 '배제하다'이다.

13 그가 모든 상상력을 모아 소설을 썼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람을 모으거나 물건, 수단, 방법 따위를 집중하다.'라는 의미의 '동원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동원'이다.

14 경찰이 용의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도로를 막아 버렸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굳게 막아 버리거나 잠그다.'라는 의미의 '봉쇄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봉쇄'이다.

15 외국 문화를 마구 받아들이면 우리 고유의 문화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사라져 없어지다.'라는 의미의 '소멸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소멸'이다.

16 한국 영화의 전성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오다.'라는 의미의 '도래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도래'이다.

20 정답 ①

3문단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는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해 오답 ?

② 2문단에서 여러 생물의 멸종, 가뭄, 홍수,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③ 1문단에서 이산화 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우리 정부는 ~ 탄소를 5억 3600만 톤까지 줄여서 배출하기로 정했다.'라면서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등'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고 했다.

21 정답 ④

3문단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로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오해 오답 ?

① 2문단에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2°C 상승하면' 생명체의 절반이 아니라 '15~40%가 사라'진다고 했다.

② 1문단에서 '빙하기가 도래했던 신생대 때에는 대기 중 이산화 탄소 농도가 180ppm에서 280ppm까지 변화했'는데, '지금은 대기 중 이산화 탄소 농도가 400ppm까지 올라간 상태'라고 했다. 즉, 현재는 빙하기가 도래했던 신생대 때보다 이산화 탄소 농도가 더 높아졌다.

③ 3문단에서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 일에 우리나라가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3문단에서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국가적·개인적 차원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둘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22 정답 ②

문맥에 따르면, ㉠은 여러 생물이 '사라져 없어진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은 '소멸하고'이다.

DAY 05 어휘력 뽐뿌 확인 문제 정답

01 노름 02 엉거 03 웬지 04 얄혀 05 여느 06 엉거

DAY 08

어휘 실력+문해력 완성 테스트 정답

▶ 문제편 p. 44~46

- 01 관습 02 용역 03 권력 04 ㉠ 05 ㉡ 06 ㉢
07 흑자 08 국내 총생산 09 실업 10 중재 11 경영
12 무역 13 마케팅 14 저작권 15 흑자 16 내우외환
17 탁상공론 18 실업 19 저작권 20 ㉡ 21 ㉢ 22 ㉤

07 '적자'의 반대말은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남은 이익이 생기는 일'을 의미하는 '흑자'이다.

08 '국내 총생산(GDP)'은 생산한 사람이 외국인인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낸다.

09 빈칸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일할 의사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실업'이다.

10 법이 사람들 간의 분쟁에 끼어들어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분쟁에 끼어들어 이편과 저편을 화해시키다'라는 의미의 '중재하다'를 문맥에 맞게 쓴 '중재'이다.

11 아들이 회사를 잘 관리하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용하다'라는 의미의 '경영하다'를 문맥에 맞게 쓴 '경영'이다.

12 빈칸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지방과 지방,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사고파는 일'을 의미하는 '무역'이다.

13 빈칸에는 소비자나 관련된 기업의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넘겨주기 위한 기획 활동'을 의미하는 '마케팅'이다.

14 빈칸에는 작품을 창작한 작가가 가지는 권리를 가리키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창작물에 대해 그것을 지은 사람이나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는 '저작권'이다.

15 판매 실적이 좋아 계속 이익을 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남은 이익이 생기는 일'을 의미하는 '흑자'이다.

20 정답 ㉡

윗글에서 무역을 통해 얻는 국가 간의 이익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역을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해 오답 ?

- ① 1문단에서 '1955년부터 2015년까지의 세계 무역 규모가 150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했다.
③ 1문단에서 '무역을 통해 상대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는 나라는 대부분 선진국과 신흥 공업국'이라고 했다.
④ 2문단에서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열매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의 농부이다.'라고 했다.
⑤ 3문단에서 '가난한 국가들은 ~ 기술, 자본 등의 도움을 받고자 무역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이를 통해 무역을 하면 기술이나 자본 등도 이동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1 정답 ㉤

3문단에서 '가난한 국가들은 선진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로부터 기술, 자본 등의 도움을 받고자 무역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오해 오답 ?

- ①, ③ 가난한 나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는 선진국이나 신흥 공업국 기업의 입장에 해당한다.
②, ④ 윗글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22 정답 ㉤

㉠ 바로 앞의 '즉'은 '다시 말하여'라는 의미의 접속어이므로, ㉠에는 앞 내용을 요약하거나 강조하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앞에서는 무역을 할수록 국가 간의 이득 차이가 커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은 '무역을 통해 얻는 각 나라의 이익이 차이가 나므로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된다.'이다.

오해 오답 ?

- ① 무역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각 나라의 이득 차이는 늘어날 것이다.
② 윗글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③ 무역의 규모를 늘리면 국가 간 경제적 격차가 커질 것이다.
④ 무역을 통해 더 큰 이득을 얻는 것은 선진국이나 신흥 공업국이므로, 이러한 이득 차이로 인해 가난한 나라가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DAY 06 어휘력 **뽕뽕** 확인 문제 정답

▶ 문제편 p. 47

- 01 쫓는 02 잃은 03 헤어졌다 04 잊었다 05 재갈

DAY 07

어휘 실력+문해력 완성 테스트 정답

▶ 문제편 p. 50~52

- 01 논설문 02 일기 03 기사문 04 ㉠ 05 ㉡ 06 ㉢
07 흑백 논증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순환 논증의 오류
08 ㉠ → ㉡ → ㉢ → ㉣ → ㉤ 09 설명문 10 건의문
11 고쳐쓰기 12 계획하기 13 내용 조직하기 14 ㉣
15 ㉢ 16 ㉣

07 (가): 준우가 뛰어노는 체육 수업을 좋아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국어 수업을 싫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체육과 국어를 모두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민주의 말은 ‘흑백 논증의 오류’에 해당한다.

(나): 특정 문제집으로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소수 학생들의 사례이다. 그 문제집으로 공부하면 다른 학생들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은 소수 학생들의 사례를 선불리 일반화시킨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한다.

(다):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 논증하여야 하는 결론이다. 이처럼 결론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순환 논증의 오류’에 해당한다.

09 (가)는 한옥의 지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설명문’이다.

10 (나)는 구청장에게 하천의 다리에 생긴 문제를 알리고, 그것을 보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의문’이다.

11 글을 완성하기 전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는 글쓰기의 과정 중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12 ‘제주도 올레길에 대해서 알리’겠다는 글의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글쓰기의 과정 중 ‘계획하기’에 해당한다.

13 글의 시작 부분, 중간 부분, 끝부분에 각각 어떤 내용을 배치할 것인지 정하고 있다. 이처럼 글의 짜임을 정하는 것은 글쓰기의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에 해당한다.

14 정답 ④

윗글은 미세 먼지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려 주고 있는 설명문이다. 설명문은 읽는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글이다. 따라서 글쓴이의 독창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설명문인 윗글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다.

>오해 오답 ?

- ①, ⑤ 설명문은 읽는 사람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쓴 글로,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
②, ③ 설명문의 목적은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며, 그 정보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한다.

15 정답 ③

윗글의 구성은 시작 부분인 1문단, 중간 부분인 2문단과 3문단, 끝부분인 4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2문단에서는 미세 먼지가 우리 몸에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3문단에서는 미세 먼지의 구성 물질과 미세 먼지가 일으키는 병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 부분인 2문단과 3문단에서는 1문단에서 제시한 미세 먼지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해 오답 ?

- ① 시작 부분인 1문단에서 ‘미세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μ m 이하의 먼지를 의미한다.’라면서 미세 먼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② 중간 부분인 2문단과 3문단에서 ‘미세 먼지 알갱이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코털과 기관지의 점막이 그것을 걸러 내지 못’하고, ‘미세 먼지는 우리의 몸에 치명적인 1급 발암 물질’이라면서 미세 먼지가 우리 몸에 치명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④, ⑤ 끝부분인 4문단에서는 미세 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잘 실천함으로써 ~ 우리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자.’라고 당부하고 있다.

16 정답 ④

4문단에서 ‘미세 먼지 수치가 높은 날에는’ ‘바깥 활동을 되도록 줄여야 한다고 했을 뿐, 절대 외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오해 오답 ?

- ① 3문단에서 ‘미세 먼지는 우리의 몸에 치명적인 1급 발암 물질’이며, ‘일반적으로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공기와 만나 형성된 화학 물질, 석탄과 석유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했다.
② 2문단에서 ‘미세 먼지 알갱이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코털과 기관지의 점막이 그것을 걸러 내지 못한다.’라고 했다.
③ 3문단에서 미세 먼지는 ‘암뿐만 아니라, 기관지와 눈, 폐 등에 크고 작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다.’라고 했다.
⑤ 1문단에 따르면 ‘10 μ m 이하의 먼지’는 미세 먼지, ‘지름이 2.5 μ m 이하인 알갱이를 지닌 먼지’는 초미세 먼지로 구분된다.

DAY 07 어휘력 뽐뿌 확인 문제 정답

▶ 문제편 p. 53

- 01 짜깁기 02 오랜만 03 초점 04 통째 05 천장

DAY 08

어휘 실력+문해력 완성 테스트 정답

▶ 문제편 p. 56~58

- 01 추론 02 논증 03 주장, 근거 04 ㉠ 05 ㉡ 06 ㉢
07 연역적 추론 08 귀납적 추론 09 유추/유비 추론
10 비판 11 인용 12 논증 13 ㉢, ㉡, ㉠ 14 (1) 젠트리
피케이션 (2) 단점, 장점 15 ㉠ 16 ㉡

07 ‘만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에서 만 20세인 윤희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질 것이라는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이는 ‘연역적 추론’에 해당한다.

08 말, 양, 사람이 각각 폐로 호흡을 한다는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모든 포유류가 폐로 호흡을 한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을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이는 ‘귀납적 추론’에 해당한다.

09 힘든 순간을 이겨 내고 목표를 달성하면 기쁨과 보람이 찾아온다는 점에서 산을 오르는 것과 인생이 비슷하다고 추론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유추(유비 추론)’에 해당한다.

10 지나친 간접 광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비판’에 해당한다.

11 ‘한국우주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끌어 쓰고 있으므로, 이는 ‘인용’에 해당한다.

12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학교 안에 CCTV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는 ‘논증’에 해당한다.

13 ①은 ‘땀을 건설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②는 ‘청소년의 이성 교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가치 논제’에 해당한다.

③은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적이다.’라는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실 논제’에 해당한다.

14 (1) 윗글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장점, 단점을 설명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 2문단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머물던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단점에 해당하고, ‘공간이 개선되고 도시가 재생된다’는 것은 장점에 해당한다.

15 정답 ㉠

윗글에서는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을 알고,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2문단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해 오답 ?

- ① 2문단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윗글에 유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④ 1문단에서는 ‘스몸비’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스몸비’를 스마트폰 중독자를 조롱하는 말로 볼 수 없으며, 윗글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도 않다.
③ 4문단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역적 추론은 나타나지 않는다.

16 정답 ㉡

3문단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 실천 노트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자기 주도적으로 사용하도록 힘쓰는 것’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국가적 차원에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해 오답 ?

- ① 1문단에서 ‘스몸비란 ‘스마트폰’과 ‘좀비’가 합쳐진 말이다.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서 주변의 다른 것들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공포 영화 속 좀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라면서 ‘스몸비’라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시간도 낭비하게’ 되어 ‘반드시 해야 할 일에도 소홀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으로 ‘척추 건강이 나빠지거나,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며,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미리 정해 두고, 그 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DAY 08 어휘력 **뽕뽕** 확인 문제 정답

▶ 문제편 p. 59

- 01 비로소 02 새벽녘 03 안성맞춤 04 산봉우리
05 햅쌀 06 생각건대 07 봉선화/봉숭아

- 01 볼모지 02 땅거미 03 풍상 04 ㉠ 05 ㉡ 06 ㉢
07 준마, 산천초목, 무성한, 자생하는 08 지상 09 미물
10 진토 11 생동하는 12 청풍 13 천재지변 14 잔설
15 만물 16 풍상 17 할벗다 18 볼모지 19 ㉣ 20 ㉤
21 ①, ⑤

08 땅속에 심은 씨앗이 땅 위로 새싹을 틔웠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땅의 위'를 의미하는 '지상'이다.

09 사람이 아닌 동물도 은혜를 알고 갚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인간에 비하여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동물'을 이르는 말인 '미물'이다.

10 그가 황금을 먼지나 흙처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티끌과 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진토'이다.

11 봄에는 나무와 풀들이 싹을 틔우고 생기 있는 모습이 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인다.'라는 의미의 '생동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생동하는'이다.

12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는 바람이 불어왔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부드럽고 맑은 바람'을 의미하는 '청풍'이다.

13 예상하지 못한 재앙으로 온 마을이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 '천재지변'이다.

14 남아 있는 눈 때문에 교통 체증이 생겼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녹다 남은 눈'을 의미하는 '잔설'이다.

15 할아버지가 세상의 다양한 것에 대한 상식이 풍부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만물'이다.

19 정답 ④

2연과 3연에 따르면, '까만 먼지'를 쓰고 있는 것과 '때 묻은 이불'을 개키고 있는 것은 모두 '잔설'이다. 즉, '까만 먼지'와 '때 묻은 이불'은 '봄비'가 아니라 '잔설'의 지저분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왜 오답?

① 윗글에서는 '봄비'가 내려 '겨우내' 잠들어 있던 '잔설'을 일깨우고, 이에 '잔설'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② '봄비'가 내리고 이에 '잔설'이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상황임을 추측할 수 있다.
③ 2연에서는 '잔설'이 '얼굴에 까만 먼지 쓰고 / 눈 감고 누워 세월 모르고 살아'왔다고 하고, 3연에서는 '투덜거리며 일어나 / 때 묻은 이불을 개'킨다고 하면서 '잔설'을 사람처럼 움직이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⑤ 1연에서 '겨우내 / 햇볕 한 모금 들지 않던 / 뒤결 추녀 밑'으로 '봄비'가 내린다고 했다.

20 정답 ④

화자는 자신이 죽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임에 대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을 뿐, 자신이 죽는 병에 걸렸음을 한탄하고 있지 않다.

▶왜 오답?

- ① 종장의 '임 향한 일편단심'이란 임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한다. 즉, 화자는 임에 대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②, ③ 초장과 중장에서 화자는 자신이 '죽고 죽어' '백골이 진토 되'고 '넋'조차 사라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⑤ 중장에서 화자는 자신의 '백골(뼈)'이 '진토' 즉 먼지와 흙이 되는 상황을 떠올리고 있다.

21 정답 ①, ⑤

- ① 화자는 자신이 죽고 또 죽어도 '임 향한 일편단심(㉠)'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일편단심'이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자가 여인이라면, ㉠은 임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⑤ 화자가 임금을 모시는 신하라면, 죽고 또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임 향한 일편단심(㉡)'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이라고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② 화자는 자신이 죽고 또 죽어도 '임 향한 일편단심(㉢)'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은 임에 대한 원망이라고 볼 수 없다.
③, ④ 화자는 '임 향한 일편단심(㉣)'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임(임금)에게 충고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있지 않다.

DAY 09 어휘력 확인 문제 정답

▶ 문제편 p. 67

- 01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02 바람 앞의 등불 03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04 가뭄에 콩 나듯

01 방자 02 사은 03 반색 04 실증 05 배포 06 겸손한
07 아리다 08 145 09 배짱 10 냉혹 11 대견 12 적적
13 ㉠ 14 ㉡ 15 ㉢ 16 ㉤

05 주어진 문장에서의 ‘배짱’은 ‘마음속으로 다져 먹은 생각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이와 바뀌 쓰기에 알맞은 단어는 ‘머리를 써서 일을 조리 있게 계획함. 또는 그런 속마음’을 의미하는 ‘배포’이다.

06 ‘겸허하다’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가 있다.’라는 의미이다. 이와 바뀌 쓰기에 알맞은 단어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를 의미하는 ‘겸손하다’이다.

07 첫 번째 문장은 아버지의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뜻이고, 두 번째 문장은 입안에 알알한 느낌이 있다는 뜻이다. 세 번째 문장은 손가락의 살갓이 베여 아프다는 뜻이다. 따라서 세 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아리다’이다.

09 ‘저 사람’이 막무가내로 버티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버티어 나가는 성품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배짱’이다.

10 그가 현실이 차갑다고 생각했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차갑고 혹독하다.’를 의미하는 ‘냉혹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냉혹’이다.

11 선생님께서 우리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호뜻하고 자랑스럽다.’를 의미하는 ‘대견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대견’이다.

12 일을 그만두신 아버지가 집에서 할 일 없이 계신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하는 일 없이 심심하다.’를 의미하는 ‘적적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적적’이다.

13 정연이가 자신에게 필요할 때는 민주와 함께 놀다가, 민주가 필요 없어지니 민주의 요청을 외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있는 속담은 ‘웁고 그림이나 신의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이다.

14 정답 ㉤

3연에서 화자는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와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때 ‘엄마와 누나와 형’은 화자가 앞서 문밖으로 쓸어 버렸던 ‘거미 새끼(㉢)’와 ‘큰 거미(㉤)’를 의미한다. 즉, 화자는 ㉢과 ㉤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해 요점 ?

- ①, ② 1연에서 화자는 ‘거미 새끼(㉢)’를 문밖으로 쓸어 버린 후에, 2연에서 ‘큰 거미(㉤)’를 또 문밖으로 버리며 ‘찬 박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화자는 ㉢과 ㉤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여 ㉤을 ㉢이 있는 문밖으로 보내고 있다.
- ③ 화자는 2연에서 ‘큰 거미(㉤)’를 쓸어 버린 후에 ‘서러워’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가족을 잃게 된 ㉤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2연에서 화자는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온 ‘큰 거미(㉤)’를 보며 ‘가슴이 찢어’함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을 자식(㉢)을 찾으러 온 어미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정답 ㉡

1문단에서 화자는 ‘거미 새끼’를 문밖으로 쓸어 버렸다(㉠). 그 후 2연에서 ‘큰 거미’를 또 문밖으로 버렸는데, 3연에서는 이 일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아린 가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자는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고(㉢), ‘이것의 엄마와 누나와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다(㉣).

16 정답 ㉤

윗글의 제목인 ‘수라’는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흩어져 있는 현장을 일컫는 불교 용어’이다. 윗글에서는 화자의 행동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미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화자는 이에 대해 슬픔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수라’는 뿔뿔이 흩어진 거미 가족의 비극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해 요점 ?

- ①, ④ 윗글의 주된 내용과 관계가 없다.
- ② ‘수라’가 ‘끔찍하게 흩어져 있는 현장을 일컫는’ 말임을 고려하면, 이는 거미들이 ‘차디찬 밤’을 견뎌야 하는 상황보다는 뿔뿔이 흩어지게 된 상황을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 ③ 화자는 거미들을 문밖으로 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있다.

DAY 10 어휘력 **뽕뽕** 확인 문제 정답

▶ 문제편 p. 73

01 유비무환 02 근목자후 03 사필귀정 04 타산지식

DAY 11

어휘 실력+문해력 완성 테스트 정답

▶ 문제편 p. 76~78

- 01 자초지종 02 선연히 03 허탕 04 고요 05 ㉠ 06 ㉡
07 ㉠ 08 망정 09 역력히 10 용이하다 11 인적
12 부득이 13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14 수월하다
15 소송 16 하찮게 여기는 17 행운 18 용이하다 19 장관
20 무참히 21 대처 22 ㉣ 23 ㉡

08 선생님께서 공지 내용을 확인해 주셔서 다행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괜찮거나 잘된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인 '망정'이다. 이 말은 주로 '-기에/니/니까/어서 망정이지'의 꼴로 쓰인다.

09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표정에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자취나 기미, 기억 따위가 환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를 의미하는 '역력히'이다.

10 시계의 알람을 이용하면 제시간에 일어나기가 쉽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쉽다.'를 의미하는 '용이하다'이다.

11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에 살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사람의 발자취 또는 사람의 왕래'를 의미하는 '인적'이다.

12 그녀가 어쩔 수 없이 학업을 그만두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마지못하여 하는 수 없이'를 의미하는 '부득이'이다.

13 연습을 하지 않아 재능이 쓸모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14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쉽다.'를 의미하는 '용이하다'와 바뀌 쓰기에 알맞은 말은 '까다롭거나 힘들지 않아 하기가 쉽다.'라는 의미의 '수월하다'이다.

15 '송사'와 '소송'은 동의어로, 모두 '재판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을 의미한다.

16 '업신여기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를 의미하므로, '하찮게 여기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7 '요행'은 '뜻밖에 얻는 행운'을 의미하므로, '행운'과 바꾸어 쓸 수 있다.

22 정답 ㉣

1연에서 '나'가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엄마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왜 오답?

- ㉠ 1연에서 '나'는 '시장에 간 우리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 1연의 '금 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를 통해 비가 고요하게 내리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1연의 '열무 삼십 단을 이고 / 시장에 간 우리 엄마'를 통해 엄마가 시장에서 열무를 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연의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을 통해 화자가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일을 떠올리며 눈물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정답 ㉡

징검다리 한가운데에서 물장난을 치던 소녀는 '이 바보.'라고 말하며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지고 있다. 그런 후에 소녀가 달려가는 갈밭의 풍경이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녀의 행위는 기분 나쁜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오답?

- ㉠ 소녀는 징검다리에 앉아 물장난을 치다가 자신을 바라보기만 하고 다리를 건너지 않는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지고 있다. 이를 통해 소녀가 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소녀는 '물을 움켜' 내지만 '번번이 허탕'을 치고 있다.
㉢ 소녀는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물을 움켜' 내면서 물장난을 치고 있다.
㉣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를 통해 소년이 이전에도 소녀를 개울가에서 마주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DAY 11 어휘력 뽐뿌 확인 문제 정답

▶ 문제편 p. 79

- 01 공출 02 새마을 운동 03 마름 04 급장 05 소학교
06 순사

DAY 12

어휘 실력+문해력 완성 테스트 정답

▶ 문제편 p. 82~84

- 01 여백 02 풍채 03 장정 04 ㉠ 05 ㉡ 06 ㉢
07 약화 08 존귀 09 완비 10 ㉢ 11 ㉤ 12 ㉣
13 ㉡ 14 위독한 15 유별나지만 16 풍채 17 빙자옥질
18 녹의홍상 19 미천하다 20 ㉡ 21 ㉣ 22 ㉡

07 왕의 힘이 점점 약해졌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세력이나 힘이 약해지다.'라는 의미의 '약화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약화'이다.

08 모든 생명이 귀하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라는 의미의 '존귀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존귀'이다.

09 마을 회관에 다양한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빠짐없이 완전히 갖추다.'라는 의미의 '완비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완비'이다.

14 의사가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급히 수혈을 했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병이 매우 중하여 생명이 위태롭다.'라는 의미의 '위독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위독한'이다.

15 수미의 성격이 독특하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보통의 것과 아주 다르다.'라는 의미의 '유별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유별나지만'이다.

16 찬혁이의 체구가 또래보다 크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을 의미하는 '풍채'이다.

20 정답 ㉡

2문단에서는 '각박한 세상', '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실수가 '숨 돌리고 살 수 있'는 여유를 준다고 했다. 하지만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실수를 자주 한다는 내용은 뒷글에 언급되지 않는다.

>왜 오답?

- ① 2문단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수의 힘 일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이는 사람이 실수를 통해 성장 하기도 함을 의미한다.
③ 1문단에서 '어처구니없음'이라는 말은 '상상이나 상식을 벗어난 경우를 지칭'한다고 했다.
④ 1문단에서 '상상에 빠지기 좋아하고 상식으로부터 자유로 워지려는 사람에게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그림자처럼 따 라다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⑤ 3문단에서 '남의 실수를 웃으면서 눈감아 주거나 그 실수 가 나오는 내면의 풍경을 헤아려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져 간다.'라고 했다.

21 정답 ㉣

2문단에서는 삶의 여유를 주거나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는 실수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3문단에서는 '사소한 실 수조차 짜증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십상'인 요즘 사회의 모습 을 지적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실수에 너그럽지 못한 사 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왜 오답?

- ① 뒷글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② 3문단에서 글쓴이는 '남의 실수를 웃으면서 눈감아 주거나 그 실수가 나오는 내면의 풍경을 헤아려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져 간다.'라면서 실수에 너그럽지 못한 요즘 사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했다. 즉, 글쓴이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눈감아 주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③ 1문단에서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사람에게 어처 구니없는 실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아주 자연 스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글쓴이는 실수의 긍정 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상식을 벗어나 어처구 니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⑤ 2문단에서 글쓴이가 '각박한 세상', '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22 정답 ㉡

- ㉠ 1문단에서는 '어처구니없음'이라는 말의 '어처구니'란 '엄 청나게 큰 사람이나 큰 물건을 가리키는 뜻에서 비롯되었 는데, 그것이 부정어와 함께 굳어지면서' '그것이 크든 작 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이나 상식을 벗어난 경우를 지칭하게' 되었다고 했다. 즉, ㉠은 '어처구니'의 크다는 뜻 자체가 약해지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은 '약화되고'이다.
㉢ 2문단에서는 '각박한 세상', '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서 실수가 '숨 돌리고 살 수 있'는 여유를 준다고 했다. 따 라서 ㉢에 들어갈 말은 '여백'이다.

DAY 12 어휘력 확인 문제 정답

▶ 문제편 p. 85

- 01 머리가 굳 02 발이 넓 03 손을 씻/손을 털 04 손이 크
05 엉덩이가 근질근질 06 간담이 서늘

DAY 13

어휘 실력+문해력 완성 테스트 정답

▶ 문제편 p. 88~90

- 01 ② 02 ① 03 ④ 04 전갈 05 결박 06 모질게
07 이룩 08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09 우물에 가
승능 찾는다 10 간악 11 웅졸 12 낙향 13 처신
14 통솔력 15 상습적 16 성미 17 악행 18 보필하다
19 모질다 20 당도하다 21 ③ 22 ⑤ 23 ③

04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동생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사람을 시켜 말을 전하거나 안부를 물음. 또는 전하는 말이나 안부'를 의미하는 '전갈'이다.

05 병사가 포로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들의 손발을 묶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몸이나 손 따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여 묶다.'라는 의미의 '결박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결박'이다.

06 악당이 주인공을 심하게 괴롭혔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마음씨가 몹시 매섭고 독하다.'라는 의미의 '모질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모질게'이다.

07 우리나라가 큰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큰 현상이나 사업 따위를 이룬다.'라는 의미의 '이룩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이룩'이다.

13 그녀가 언제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져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을 취하다.'라는 의미의 '처신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처신'이다.

14 장군이 군대를 이끄는 훌륭한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리를 거느려 다스리는 능력'을 의미하는 '통솔력'이다.

15 철수가 습관처럼 자주 지각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좋지 않은 일을 버릇처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습적'이다.

16 그의 성질이 사납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성질, 마음씨, 비위, 버릇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성미'이다.

21 정답 ③

2연에서 화자는 '내 모진 소리를 자꾸 생각했을 / 내 모진 소리에 무수히 정 맞았을 /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이 내뱉은 모진 말에 상처받았을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오해 오답 ?

- ① 1연에서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더라도 / 내 귀를 겨냥한 소리가 아니더라도 / 모진 소리를 들으면 /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했다. 즉, 모진 소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때도 마음을 아프게 한다.
- ② 2연에서 화자는 '내 모진 소리를 자꾸 생각했을 / 내 모진 소리에 무수히 정 맞았을 /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다른 사람에게 모진 소리를 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모진 소리로 인해 '온몸이 쿡쿡 아파 온다'는 것은 모진 소리가 온몸을 찌르는 것처럼 마음에 날카로운 상처를 낸다는 의미이다. 모진 소리가 몸에 물리적으로 상처를 낼 수 있는 폭력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2연에 따르면, '덜컹거리는 지하철'에서 모진 소리를 떠올리는 사람은 '내 모진 소리에 무수히 정 맞았을 / 누군가'이다.

22 정답 ⑤

윗글에서 화자는 '누군가의 온몸을 / 가슴속부터 찢 금 가게 했을 / 모진 소리'를 떠올리고, '내 모진 소리에 무수히 정 맞았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해 오답 ?

- ①, ②, ④ 윗글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다.
- ③ 화자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에 금이' 가게 하는 모진 소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화자는 무언가를 비판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3 정답 ③

㉠은 모진 소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넓게는 사회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화자가 모진 소리(㉡)로 인해 나빠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보는지는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다.

DAY 13 어휘력 뽐뿌 확인 문제 정답

▶ 문제편 p. 91

- 01 종횡무진 02 시종일관 03 백해무익 04 결자해지
05 일희일비 06 주객전도

DAY 14

어휘 실력+문해력 완성 테스트 정답

▶ 문제편 p. 94~96

01 예사 02 장인 03 동리 04 정처 05 일감 06 생사고락
07 사명 08 흥망성쇠 09 ⑤ 10 ① 11 ② 12 ③
13 세간 14 곡절 15 가로 (1) 농토 (2) 순리 (3) 생사고락
세로 (1) 토박이 (2) 고장 (3) 실리 16 ④ 17 ⑤

05 첫 번째 문장은 일거리가 쌓여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그가 일거리를 구하러 다녔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일을 하여 돈을 벌 거리'를 의미하는 '일감'이다.

06 첫 번째 문장은 두 사람이 삶과 죽음, 고통과 즐거움의 경험을 함께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그녀가 그를 평생 동안 삶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같이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삶과 죽음, 괴로움과 즐거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생사고락'이다.

07 첫 번째 문장은 그녀가 맡은 임무를 다하려 노력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그가 의사로서의 임무를 되새기려고 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맡겨진 임무'를 의미하는 '사명'이다.

08 첫 번째 문장은 '이것'이 나라가 잘되고 안되는 것이 달린 문제라는 뜻이고, 두 번째 문장은 집안이 잘되고 안되는 것이 '너'에게 달렸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흥하고 망함과 성하고 쇠함'을 의미하는 '흥망성쇠'이다.

13 이사를 한 후에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을 의미하는 '세간'이다.

14 그가 부모님이 겪으셨을 이런저런 어려운 사정을 떠올린 것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순조롭지 아니하게 얹힌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이나 까닭'을 의미하는 '곡절'이다.

16 정답 ④

화자인 '나'가 '봄이야'라는 말을 전하며 나뭇잎, 꽃잎을 깨우고 있는 햇빛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나'가 햇빛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다.

>왜 오답?

- ① 3행과 4행, 13행과 14행에서 햇빛이 '봄이야'라는 말을 전하고 있다고 했다.
- ② 7~9행에서 햇빛이 '나무 한 잎 피우려고 / 잠든 꽃잎의 눈꺼풀 깨우려고 / 지상에 내려온다고 했다.
- ③ 11, 12행에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햇빛이 /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다.
- ⑤ 윗글에서는 '봄이야'라는 말을 전하고, '나무 한 잎 피우려고 / 잠든 꽃잎의 눈꺼풀 깨우려고 / 지상에 내려오는 햇빛들이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햇빛의 사명이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정답 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라는 아버지의 말에서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즉, 아버지의 말은 진심으로 나라의 경제를 걱정하여 휘발유 수입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집하는 노새가 삼륜차에 밀리는 상황에 대한 오기인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나라의 휘발유 수입을 줄이고자 노새로 연탄 배달을 시작했다는 설명은 알맞지 않다.

>왜 오답?

- ①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삼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하며,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는 삼륜차에 실제로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라고 했다.
- ②, ④ 아버지는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삼륜차 때문에'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한 상황에서도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라고 큰소리치면서 노새를 이끄는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가 시대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 ③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으며,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 마차를 끌었다.'라고 했다.

DAY 14 어휘력 **뽕뽕** 확인 문제 정답

▶ 문제편 p. 97

01 팔은 안으로 굽는다 02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03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04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 05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DAY 13

어휘 실력+문해력 완성 테스트 정답

▶ 문제편 p. 100~102

- 01 영탄법 02 기승전결 03 설의법 04 수미상관
05 선경후정 06 음보율 07 도치법 08 × 09 ○
10 × 11 영탄법 12 대구법 13 반어법 14 회의적 태도
15 설의법 16 3음보 17 수미상관 18 ① 19 ② 20 ④

08 쌀쌀하게 비웃는 것은 냉소적 태도이다.

10 관조적 태도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태도'로, 화자가 절제된 감정으로 대상을 담담하게 응시할 때 나타난다.

11 '아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고, '날러갔구나!'라는 감탄형으로 문장을 끝내어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놀람, 슬픔, 기쁨 등의 감정을 감탄하는 말로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인 '영탄법'에 해당한다.

12 '-는 -같이'라는 비슷한 구성의 문장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다. 이는 '비슷한 구성의 문장을 나란히 놓는 표현 방법'인 '대구법'에 해당한다.

13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슬픔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실제 뜻과는 반대로 말하는 방법'인 '반어법'에 해당한다.

14 화자는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쳐도 '비로 값도 안 나오는 농사'를 내버려 두고 춤(농무)을 추고 있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15 1행의 '발버둥친들 무엇하랴'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물음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설의법'을 사용하고 있다.

16 음보율이란 '한번에 말할 수 있는 단위인 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생기는 운율'을 말한다. 윗글에서는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저만치 ∨ 혼자서 ∨ 피어 있네'와 같이 3음보의 음보율이 나타나고 있다.

17 1연과 4연에서는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시의 처음과 끝에 같거나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여 배치하는 방법'인 '수미상관'에 해당한다.

18 정답 ①

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음보율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해 오답 ?

- ② 5행에서 '오월'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③ 2행과 12행의 '있을 테요', 4행의 '잠길 테요'에서 '-르 테요'라는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④ 윗글에서는 '모란'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운율이 형성된다.
⑤ 1, 2행과 11, 12행에서는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는 수미상관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19 정답 ②

화자는 떨어지는 모란에 서러움을 느끼면서도 '모란이 피기까지는' '봄'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란이 다시 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희망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오해 오답 ?

- ① 화자는 떨어지는 모란에 서러움을 느끼고 있을 뿐, 모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③, ⑤ 화자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봄'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모란이 다시 필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는 '설움에 잠길 테요', '섭섭해 우웁네다'라면서 모란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서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관조적 태도란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이므로, 이러한 화자의 태도를 관조적이라고 볼 수 없다.

20 정답 ④

- ㉠은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라는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도치법이 쓰였다. 또한 '찬란한 슬픔의 봄'은 겉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으로, 역설법이 쓰였다.
㉡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지만 '잊었노라'라고 반대로 말하는 것으로, 반어법이 쓰였다.

>오해 오답 ?

- ① '총각애들이 감자를 굽는 게지'라는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도치법이 쓰였다.
② '임에게 땃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라는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도치법이 쓰였다.
③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은 겉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으로, 역설법이 쓰였다.
⑤ '님'은 떠났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겉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으로, 역설법이 쓰였다.

DAY 15 어휘력 빵빵 확인 문제 정답

▶ 문제편 p. 103

- 01 단사표음 02 우국지정 03 역군은 04 풍진

DAY 16

어휘 실력+문해력 완성 테스트 정답

▶ 문제편 p. 106~108

01 풍자 02 서술 03 해학 04 묘사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묘사 13 편집자적 논평
14 시나리오, 영화 상영 15 E. 16 과거, 입체적 17 서술
18 ㉤ 19 ㉡ 20 ㉡

08 ‘문장에 드러나는 작가만의 독특한 말투나 개성 있는 표현’은 편집자적 논평이 아니라 문체이다.

09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평면적 구성 혹은 순행적 구성이라고 한다.

10 시나리오가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쓴 각본’인 것은 맞다. 하지만 장면 단위가 장과 막으로 구분되는 것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희곡이다.

12 서술자가 갈꽃을 안고 들길을 걸어가는 소녀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서술자가 사건이나 배경, 인물의 외모 등을 그림을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묘사’에 해당한다.

13 서술자가 개천에 빠진 인물의 상황에 대해 ‘아무리 소리 쳐도 해는 저물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으니 누가 건져 주리.’ 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이는 서술자가 이야기에 끼어들어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를 직접 드러내는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14 ‘S#100’이라는 장면 번호와 등장인물들의 대사 등을 통해 윗글이 ‘시나리오’임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하여 쓴 각본으로,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

15 ㉠은 라디오에서 뉴스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므로, ‘E.(효과음)’를 이용해 실제로 뉴스 소리를 넣으면 장면을 실감 나게 표현할 수 있다.

16 윗글의 인물은 ‘작년 이맘때도 ~’라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윗글의 구성은 이야기의 진행이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입체적 구성’이다.

17 ㉠은 서술자가 ‘작년 이맘때’의 일을 직접 설명하는 ‘서술’에 해당한다.

18 정답 ㉤

‘S#’이라는 장면 번호를 통해 윗글이 시나리오임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는 촬영 후에 영상을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희곡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덜하다.

>오해 오답 ?

- ① 장면 번호(S#)는 곧 시나리오의 구성 단위이다.
- ② 시나리오는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쓴 각본이다.
- ③ 시나리오는 영화로 만들기 위한 글이므로, 주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 ④ 시나리오에는 C.U., E. 등의 특수한 용어가 사용된다. 이는 장면을 효과적으로 촬영하기 위한 것이다.

19 정답 ㉡

S#1에서는 가난한 산동네에 위치해 있는 ‘여민이네 집’의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살림을 하고, 동생은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윗글을 촬영할 때 S#1의 배경 음악을 슬픈 분위기의 노래로 한다는 것은 알맞지 않다.

>오해 오답 ?

- ① S#1에서는 ‘여민이네 집’이 ‘판잣집들이 게딱지처럼 붙어 있는 중소 도시의 산동네’에 위치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윗글을 촬영할 때는 가난한 산동네를 배경으로 해야 한다.
- ③ S#17에서 신발 가게의 주인은 ‘여민 모의 백태가 가득 낀 눈을 보고는’ 신발을 팔지 않는다며 여민 모와 여민을 쫓아내고 있다. 장애인에게 처음으로 물건을 팔면 재수가 없을까 봐 두 사람을 모질게 내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윗글을 촬영할 때 신발 가게 주인은 다소 사납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
- ④ S#17의 배경은 ‘신발 가게’이며, 지시문에는 ‘여민과 여민 어머니가 운동화를 고르고 있고, 주인은 저쪽에서 신발들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윗글을 촬영할 때는 여러 개의 신발을 소품으로 준비해야 한다.
- ⑤ S#17에서 인물들은 모두 ‘이게 얼마표지?’, ‘와 안 팝니까?’, ‘퍼뜩 나가이쇼.’ 등 사투리를 쓰고 있다. 따라서 윗글을 촬영할 때는 배우들에게 사투리를 실감 나게 연기해 달라고 지시해야 한다.

20 정답 ㉡

S#17에서 신발 가게의 주인은 ‘여민 모의 백태가 가득 낀 눈을 보고는’ 신발을 팔지 않는다며 여민 모와 여민을 쫓아내고 있다. ㉠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민이 주인에게 ‘와 안 팝니까?’라고 따져묻는 상황이므로, 여민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적절한 ‘화가 나서’라는 지시문이 ㉠에 들어가야 한다.

DAY 16 어휘력 확인 문제 정답

▶ 문제편 p. 109

01 거드름 02 품앗이 03 시나브로 04 지청구 05 맵시
06 어깃장

DAY 17

어휘 실력+문해력 완성 테스트 정답

▶ 문제편 p. 114~116

01 ② 02 ① 03 ③ 04 ㉠ 05 ㉠ 06 ㉠ 07 ㉠
08 마이동풍 09 청산유수 10 친밀감 11 공감 12 격려
13 존대 14 ○ 15 ○ 16 × 17 생색내다 18 함구하다
19 관점 20 설득 21 ④ 22 ③

08 경찰이 피해자 가족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인 '마이동풍'이다.

09 그녀의 말솜씨가 뛰어났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막힘없이 썩 잘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청산유수'이다.

10 '나'가 그를 가까운 사이로 느꼈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운 느낌'을 의미하는 '친밀감'이다.

11 '나'가 친구의 말을 듣고 자신도 그렇다고 생각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다.'라는 의미의 '공감하다'를 문맥에 맞게 쓴 '공감'이다.

12 '나'가 민준이를 응원했다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게 하다.'라는 의미의 '격려하다'를 문맥에 맞게 쓴 '격려'이다.

13 아버지께서 어른에게 공손히 말하는 법을 가르치셨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존경하는 말투로 대하다.'라는 의미의 '존대하다'를 문맥에 맞게 쓴 '존대'이다.

14 은어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단 외의 사람들은 은어를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은어는 암호 같은 성격을 갖는다.

15 비속어란 '품위가 없고 천한 말'을 의미한다.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우에 어긋나게 쓰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교양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16 은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집단 외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므로, 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비속어는 그러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

21 정답 ④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유 재산에 비해 공유 재산을 마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공유 재산은 내가 이용할 수는 있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공유 재산이 사유 재산보다 가치가 작기 때문은 아니다.

▶ 왜 오답?

- ① 선생님은 '사유 재산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공유 재산'이라고 했다.
- ② 선생님은 '지리산에 사는 반달곰은 일종의 '공유 재산'이'라고 했다.
- ③ 선생님은 '공유 재산은 내가 이용할 수는 있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구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라고 했다.
- ⑤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공유 재산이란 '사회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으로, '특정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는' 사유 재산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공유 재산은 사회의 구성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특정 개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

22 정답 ③

선생님은 '공유 재산', '사유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경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이지, 은어가 아니다.

▶ 왜 오답?

- ① 선생님은 공유 재산과 사유 재산의 개념을 각각 제시한 뒤에, '사유 재산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공유 재산'이라면서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② 위 대화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그에 맞는 대답을 적절히 하고 있다. 이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 ④ 대화의 끝부분에서 선생님은 '아까 선생님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자.'라면서 '모든 반달곰을 산에 풀어 주는 것이 꼭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아까 선생님의 질문'은 대화의 앞부분에서 선생님이 언급했던 '동물원에 사는 반달곰과 지리산에 사는 반달곰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할까?'이다.
- ⑤ 학생 2는 사람들이 공유 재산을 마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생님의 말에 공감하고, '저도 사실 ~ 학급 도서보다는 제 교과서를 더 소중히 다뤄요.'라면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DAY 17 어휘력 **뽕뽕** 확인 문제 정답

▶ 문제편 p. 117

01 섬/석 02 씹 03 자/척 04 두름, 축 05 괄 06 푼

DAY 18

어휘 실력+문해력 완성 테스트 정답

▶ 문제편 p. 120~122

- 01 밑절 02 선정 03 활용 04 고려 05 간결 06 구성
07 ㉠ 08 ㉠ 09 ㉠ 10 ㉠ 11 ㉠ 12 임기응변
13 적재적소 14 체계적 15 의견 16 연설 17 시각 자료
18 비언어적 19 ○ 20 × 21 ㉠ 22 ㉠ 23 ㉠

04 약을 먹어도 환자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수술을 하는 경우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생각하고 해야 할 보다.'라는 의미의 '고려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고려'이다.

05 선생님이 개념을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간단하면서도 짜임새가 있다.'라는 의미의 '간결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간결'이다.

06 비타민이 풍부한 재료들로 식단을 짜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를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다.'라는 의미의 '구성하다'를 문맥에 맞게 적은 '구성'이다.

12 그가 면접관의 질문에 즉각 그 자리에서 대답을 잘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을 의미하는 '임기응변'이다.

13 선수들을 알맞은 자리에 배치하지 않아 경기에서 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씌. 또는 그런 자리'를 의미하는 '적재적소'이다.

14 각각의 학습 내용을 짜임새 있게 연결 지어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말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체계적'이다.

15 선생님과 부모님의 생각을 들어보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을 의미하는 '의견'이다.

16 윗글은 전교 회장 후보자의 '연설'을 위해 쓴 글이다. 후보자는 '참신하고 재미있는 행사'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청중에게 자신을 뽑아달라고 말하고 있다.

17 윗글에서는 화면에 '설문 조사 결과표'를 띄워 활용하고 있다. 이는 '실물이나 상황을 사실감 있게 보여 주는 자료'인 '시각 자료'에 해당한다.

18 ㉠은 몸짓이므로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20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 표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돕는 의사소통의 보조적 수단이다.

21 정답 ㉠

1문단에서는 아보카도가 지구의 환경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2문단과 3문단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는 아보카도가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청중에게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위 발표의 주제는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아보카도'이다.

22 정답 ㉠

발표자는 '아보카도가 지구의 환경을 파괴한다'라는 문제 상황과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해 오답 ?

① 3문단에서 발표자는 '숲이 언제 보이나요?'라면서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에 청중은 '울창해요!'라고 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표자와 청중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의 '아보카도를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문단의 '숲이 언제 보이나요?' 등 발표자는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청중이 발표에 집중하게 하고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발표자는 '멕시코의 한 숲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매체 자료 중 시각 자료에 해당한다.

⑤ 발표자는 2문단에서 '적게는 9,789 km에서 1만 3,054 km의 거리'라고 하고, 3문단에서 '약 6.9 km'라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23 정답 ㉠

㉠은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므로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오해 오답 ?

①~④ 청중을 둘러보고, 심호흡을 하고, 손가락을 펴 보이고, 사진을 손으로 가리키는 행동은 모두 몸짓이므로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DAY 18 어휘력 뽐뿌 확인 문제 정답

▶ 문제편 p. 123

- 01 치유 02 안전문 03 각자 내기 04 수요/바람
05 상징 노래 06 원작 재구성

DAY 19

어휘 실력+문해력 완성 테스트 정답

▶ 문제편 p. 128~130

- 01 ㉠ 02 ㉡ 03 ㉢ 04 ㉣ 05 ① 06 ③ 07 ②
08 잡- 09 -하- 10 잡하- 11 가로: 접미사, 세로: 접두사
12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13 이중 모음, 단모음 14 올림소리
15 ○ 16 × 17 ○ 18 9 19 예나, 분위기, 밝-, 만들-
20 는, 를, -게, -었-, -다 21 ④ 22 ③ 23 ③ 24 ③

05 받침 ‘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표준발음법 제9항과 관련이 있다.

06 겹받침 ‘ㅃ’에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이’가 붙어서 ‘ㅃ’ 중 뒤엣것인 ‘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 경우이다. 이는 표준발음법 제14항과 관련이 있다.

07 홀받침 ‘ㅍ’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예’가 붙어서 ‘ㅍ’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 경우이다. 이는 표준발음법 제13항과 관련이 있다.

08 어근은 ‘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다. ‘잡-+-하-+-다’에서 ‘움켜 쥐다’ 혹은 ‘손에 넣다’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 ‘잡-’이다.

09 접사는 ‘혼자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하-’는 어근 ‘잡-’에 붙어 ‘당하다(다른 힘에 의하여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접사)이다.

10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잡히다’는 ‘잡히는, 잡히어, 잡히니’ 등으로 활용하며, 이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잡히-’이다.

15 ㄴ(하늘)은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ㄱ(책+가방), ㄷ(봄+비), ㄹ(도둑+-질)은 둘 이상의 어근 혹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16 ‘도둑질’의 ‘-질’은 ‘도둑’이라는 명사에 붙어 그 행위를 낮추어 안 좋게 말하는 접미사이다.

17 ㄱ은 어근 ‘책’과 어근 ‘가방’, ㄷ은 어근 ‘봄’과 어근 ‘비’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ㄹ은 ‘도둑’이라는 명사와 접미사 ‘-질’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18 주어진 문장은 ‘예나/는/분위기/를/밝-/게/만들-/었-/다’라는 9개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다.

19 실질 형태소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이므로, ‘예나, 분위기, 밝-, 만들-’이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20 형식 형태소란 ‘실질 형태소에 붙어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소’이므로, ‘는, 를, -게, -었-, -다’가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21 정답 ④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닭아[다까]’처럼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용언의 받침을 어미의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에 따라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발음해야 한다는 것은 알맞지 않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한글 맞춤법 제15항과 관련이 있다.

22 정답 ③

‘중-’과 ‘싫-’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이자 실질 형태소이다.

>왜 오답?

- ① ‘책’과 ‘노래’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실질 형태소이다.
② ‘중고’는 ‘좋은, 좋으니, 좋아서’ 등으로 활용한다. 이때 변하지 않는 부분인 ‘중-’은 어간이고, ‘-고’는 어미이다.
④, ⑤ <보기>의 문장은 ‘나/는/책/이/중-/고/노래/는/싫-/다’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 중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는 ‘는, 이, -고, -다’이다.

23 정답 ③

<보기>에 쓰인 자음 중 된소리는 ‘ㅃ’, 올림소리는 ‘ㄴ, ㄹ, ㅁ, ㅇ’,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이중 모음은 ‘ㅕ, ㅛ, ㅜ’이다.

24 정답 ③

‘골목길’은 어근 ‘골목’과 어근 ‘길’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왜 오답?

- ① ‘달다’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달-’이다. 또한 ‘달다’는 ‘달는, 달으니, 달아서’ 등으로 활용하므로, 변하지 않는 부분인 ‘달-’이 어간이다.
② ‘열리다’의 어근은 ‘열-’이고, ‘-리-’는 ‘당하다’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이다. 또한 ‘열리다’는 ‘열리는, 열리니, 열리어’ 등으로 활용하므로, 어간은 ‘열리-’이다.
④ ‘잡히다’의 어근은 ‘잡-’이고, ‘-히-’는 ‘당하다’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이다.
⑤ ‘높이’는 ‘높-’이라는 형용사의 어근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인 ‘-이’가 결합한 것이다.

DAY 19 어휘력 뽐뿌 확인 문제 정답

▶ 문제편 p. 131

- 01 ③ 02 ① 03 ⑤

DAY 20

어휘 실력+문해력 완성 테스트 정답

▶ 문제편 p. 134~136

- 01 ㉔ 02 ㉔ 03 ㉔ 04 ㉔ 05 모음 조화, 두음 법칙
06 ㉔, ㉔, ㉔, ㉔, ㉔, ㉔, ㉔ 07 비음화 08 ㉔, ㉔, ㉔, ㉔
09 ㉔ 10 ㉔ 11 ㉔ 12 서술어 13 관형어 14 부사어
15 보어 16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17 유음화
18 구개음화 19 ㉔ 20 ㉔ 21 ㉔ 22 ㉔

09 '밤땀[밤땀]'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이[가치]'는 구개음화, '돋보기[돋뵤기]'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며, 이는 모두 음운의 교체 현상이다.

10 '숨이불[숨니불]', '눈요기[눈노기]', '논일[논닐]'에는 모두 'ㄴ'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11 '뽕아[뽀아]', '닿은[다은]', '좋을[조을]'에는 모두 'ㅎ'이 탈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12 '간다'는 주어인 '민재는'의 행동을 설명하는 '서술어'이다.

13 '재미있는'은 체언(명사)인 '이야기'를 꾸미는 '관형어'이다.

14 '꿈틀'은 용언(동사)인 '움직였다'를 꾸미는 '부사어'이다.

15 '반장이'는 '되었다' 앞에 쓰여 문장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하는 '보어'이다.

16 '꽃집'이 [꼇집]이 되는 과정에서 받침 'ㄷ'이 'ㄷ'으로 바뀌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 것이다. 이후 'ㄷ'이 'ㅈ'으로 바뀌어 [꼇집]이 되는 것은 '된소리되기'에 의한 것이다.

17 '난로'가 [날로]가 되는 과정에서 'ㄴ'이 'ㄴ'으로 바뀌는 것은 '유음화'에 의한 것이다.

18 '해돋이'가 [해도지]가 되는 과정에서 'ㄷ'이 'ㄷ'으로 바뀌는 것은 '구개음화'에 의한 것이다.

19 정답 ㉔

'깡충깡충'에서 'ㄱ'은 양성 모음이고 'ㄴ'은 음성 모음이므로, 이는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예이다.

20 정답 ㉔

㉔ '닿다[다타]'를 발음할 때는 'ㅎ'이 'ㄷ'과 합쳐져 'ㅌ'으로 줄어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며, 이는 음운의 축약에 해당한다.

▶왜 오답?

㉔ ㉔ '값[갑]'을 발음할 때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겹받침 'ㅂ' 중 'ㅅ'이 탈락한다.

㉔ ㉔ '히읇[히읇]'을 발음할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받침 'ㅎ'이 'ㄷ'으로 교체된다.

㉔ ㉔ '담요[담뇨]'를 발음할 때는 원래는 없던 'ㄴ'이 첨가된다.

㉔ ㉔ '먹는다[명는다]'를 발음할 때는 받침 'ㄱ'이 뒤에 있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비음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21 정답 ㉔

'매일같이[매일가치]'는 'ㅌ'이 '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이는 음운의 축약이 아니라 교체에 해당한다.

▶왜 오답?

㉔ ㉔ '접합한[저파판]'은 'ㅌ'과 'ㅎ'이 합쳐져 'ㅌ'으로 줄어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며, 이는 음운의 축약에 해당한다.

㉔ ㉔ '식물[싱물]'은 받침 'ㄱ'이 뒤에 있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며, 이는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

㉔ ㉔ '꽃봉오리[꼇뽕오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받침 'ㄷ'이 'ㄷ'으로 바뀌고, 'ㅌ'이 'ㅌ'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이는 모두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

㉔ ㉔ '생겼다[생겄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고, 'ㄷ'이 'ㅌ'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이는 모두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

22 정답 ㉔

'잠시만(㉔)'은 '다녀와서'라는 용언(동사)을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부사어는 부속 성분으로, 문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지는 않다.

▶왜 오답?

㉔ ㉔ '현석아(㉔)'는 누군가를 부르는 말이고, '응(㉔)'은 대답하는 말이다. 이는 모두 문장 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어이다.

㉔ ㉔ '내가(㉔)'는 '까먹어서'라는 행위의 주체가 되는 주어로, 문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주성분이다.

㉔ ㉔ 문맥상 '좀 알려 줄 수 있니?(㉔)'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시험 범위'를 알려 달라는 의미이다. 즉, 원래는 '시험 범위를 좀 알려 줄 수 있니?'라는 문장에서 목적어인 '시험 범위를'이 생략된 것이다.

㉔ ㉔ '잠시만(㉔)'은 '다녀왔다가'라는 용언(동사)을 꾸미고 있는 부사어이다.

DAY 20 어휘력 **뽕뽕** 확인 문제 정답

▶ 문제편 p. 137

- 01 ㉔ 02 ㉔ 03 ㉔

- 01 ㉠ 02 ㉡ 03 ㉢ 04 가로 (1) 화자 (2) 접속 표현
세로 (1) 맥락 (2) 청자 (3) 지시 표현 05 상황 맥락
06 사회·문화적 맥락 07 사회·문화적 맥락 08 그래서
09 하지만 10 게다가 11 자주 정신, 애민 정신, 실용 정신
12 합성 13 가획 14 상형 15 병서 16 ㉢ 17 ㉤ 18 ㉥

05 A와 B의 대화에서는 ‘도서관’이라는 장소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발화의 목적 등 상황 맥락이 드러나고 있다.

06 샘(외국인)이 유빈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나라마다 언어 사용 등에 나타나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해당한다.

07 찬희가 말한 ‘문상’은 ‘문화 상품권’의 줄임말인데, 할머니는 이를 죽음과 관련된 단어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할머니가 젊은 세대(나이)의 표현을 몰라서 벌어진 상황이므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해당한다.

08 소희가 횡단보도에서 민지를 보았기 때문에 손을 흔들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표현인 ‘그래서’가 들어가야 한다.

09 승빈이가 방 청소는 하지 않았지만 설거지는 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서로 반대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이어 줄 때 쓰는 접속 표현인 ‘하지만’이 들어가야 한다.

10 동생이 세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쓸 뿐만 아니라 제자리에 두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앞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일 때 쓰는 접속 표현인 ‘게다가’가 들어가야 한다.

12 둘 이상의 기본 글자를 합하여 글자를 만드는 방법인 ‘합성’에 해당한다.

13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여 글자를 만드는 방법인 ‘가획’에 해당한다.

14 형상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는 방법인 ‘상형’에 해당한다.

15 둘 이상의 글자를 나란히 적어 글자를 만드는 방법인 ‘병서’에 해당한다.

16 정답 ㉢

승희는 송주의 발화에서 이름이 언급되고 있을 뿐, 담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오해 오답 ?

- ①, ② 송주와 예찬이는 서로 발화를 주고받고 있는 화자이자 청자이다.
④ 위 담화에서는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송주의 발화와, 이에 적절히 대답하는 예찬이의 발화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통일성이 지켜지고 있다.
⑤ ‘교실에서’라는 주어진 정보를 통해 위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교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어 수업이 곧 시작될 텐데’라는 송주의 발화를 통해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국어 수업 직전 쉬는 시간’임을 알 수 있다.

17 정답 ㉤

송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내가 입은 옷’으로 대화의 소재를 바꾸고 있는데, 이때 화제를 앞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표현인 ‘그런데(㉡)’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이를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표현인 ‘그래서’로 바꾸면 담화의 응집성이 떨어지게 된다.

▶오해 오답 ?

- ①, ③ ‘이’ 계열의 지시 표현은 화자와 가까운 것을, ‘그’ 계열의 지시 표현은 화자와 멀고 청자와 가까운 것을, ‘저’ 계열의 지시 표현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먼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책(㉠)’은 화자인 송주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저 책(㉢)’은 화자인 송주와 청자인 예찬이 모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 책(㉠)’과 ‘그 책(㉡)’은 모두 송주가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18 정답 ㉤

㉤는 ‘합성’의 원리이다. 이에 따르면, 기본자 ‘丨’와 ‘丶’를 합하여 만들 수 있는 모음은 ‘ㅏ’와 ‘ㅑ’이다.

▶오해 오답 ?

- ① ㉠은 ‘가획’, ㉡는 ‘상형’, ㉢는 ‘합성’의 원리로 모두 한글의 창제 원리에 해당한다.
② ㉠ ‘가획’의 원리에 따르면, ‘ㄷ’에 획을 더하면 ‘ㅌ’이 되고 획을 더할수록 더 거센 소리가 난다.
③ 자음의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다.
④ 초출자는 기본자에 ‘ㆍ’를 한 번 합하여 만든 글자이고, 재출자는 초출자에 ‘ㆍ’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DAY 21 어휘력 **뽕뽕** 확인 문제 정답

▶ 문제편 p. 143

- 01 ① 02 ㉢ 03 ①

마무리 복습 테스트 정답

DAY 01

- 01 공동체
- 02 규제
- 03 폐단
- 04 남용
- 05 언론
- 06 가족
- 07 겨루다

- 08 ①
- 09 ④
- 10 ②
- 11 비옥
- 12 성차별
- 13 이익 집단
- 14 비정부 기구

DAY 02

- 01 유출
- 02 황량
- 03 섭취
- 04 고갈
- 05 너머
- 06 곤혹
- 07 영양소
- 08 결핍
- 09 자정
- 10 방치
- 11 적자생존
- 12 번역
- 13 기후 변화

DAY 03

- 01 공유
- 02 구상
- 03 대중성
- 04 ③
- 05 ④

- 06 ②
- 07 갈등
- 08 재현
- 09 색채
- 10 향유
- 11 공존
- 12 들어내다가, 붙인
- 13 메고, 버리기

DAY 04

- 01 계량
- 02 방출
- 03 제어
- 04 감지
- 05 동력
- 06 관측
- 07 광물
- 08 분해
- 09 추출
- 10 작용
- 11 실사구시
- 12 일신월성
- 13 새웠기
- 14 삭이지
- 15 썩히고

DAY 05

- 01 분투
- 02 냉전
- 03 반증
- 04 압제
- 05 성찰
- 06 명승고적
- 07 종묘사직
- 08 왜곡
- 09 ③
- 10 ①

- 11 ②
- 12 ④
- 13 도래
- 14 동원
- 15 어느
- 16 얹혀
- 17 웬

DAY 06

- 01 ㉠
- 02 ㉡
- 03 ㉢
- 04 용역
- 05 탁상공론
- 06 사면
- 07 경영
- 08 중재
- 09 탄핵
- 10 관습
- 11 권력
- 12 흑자
- 13 내우외환
- 14 저작권
- 15 잊지
- 16 좇아
- 17 헤어진
- 18 쫓았다

DAY 07

- 01 ㉠
- 02 ㉡
- 03 ㉢
- 04 ㉣
- 05 ㉤
- 06 내용 표현하기,
계획하기,
내용 조직하기,

고쳐쓰기,
내용 생성하기

- 07 ㉠ → ㉡ → ㉢
→ ㉣ → ㉤
- 08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흑백 논증의
오류, 순환 논증의
오류

- 09 으레
- 10 해돋이
- 11 오랜만, 오랫동안
- 12 초점

DAY 08

- 01 서론, 본론, 결론
- 02 연역적 추론
- 03 귀납적 추론
- 04 인용
- 05 비판
- 06 유추/유비 추론
- 07 ㉠
- 08 ㉡
- 09 ㉢
- 10 첫
- 11 두
- 12 태극기
- 13 절체절명
- 14 아랫집

DAY 09

- 01 잔설
- 02 진토
- 03 청풍
- 04 풍파
- 05 울창한
- 06 지면
- 07 천재지변

- 08 만물
- 09 산천초목
- 10 땅거미
- 11 혈벗은
- 12 불모지
- 13 자생
- 14 사시사철
- 15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 16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 노릇
한다

DAY 10

- 01 냉혹
- 02 배장
- 03 대견
- 04 ③
- 05 ⑤
- 06 ④
- 07 ①
- 08 겸허하여
- 09 아렸다
- 10 흡족한
- 11 능장
- 12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
긴다
- 13 사필귀정
- 14 반면교사

DAY 11

- 01 망정
- 02 요행
- 03 송사
- 04 고요
- 05 무참히

- 06 인적
07 (1) 마름
(2) 일제 강점기
08 ③
09 ②
10 ①
11 뚜렷이
12 도회지
13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DAY12

- 01 ㉠
02 ㉡
03 ㉢
04 ㉣
05 풍채
06 녹의홍상
07 장정
08 둔갑
09 위독
10 영글어
11 여백
12 아물거리
13 완비
14 강화되다
15 비천하다
16 ㉠
17 ㉡
18 ㉢

DAY13

- 01 간악
02 낙향
03 웅졸
04 ⑤
05 ③

- 06 ④
07 ②
08 보필
09 술에술 탄듯 물에
 물 탄 듯
10 도달
11 포박
12 조준
13 우문현답
14 침소봉대
15 시종일관

DAY14

- 01 ㉢
02 ㉡
03 ㉠
04 ㉣
05 분수
06 생사고락
07 식솔
08 토박이
09 실리
10 동리
11 농토
12 순리
13 예사
14 정처
15 고장
16 입술이 없으면 아가
 시리다
17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DAY15

- 01 선경후정
02 음수율
03 전, 결

- 04 ③
05 ②
06 전전반측
07 단사표음
08 관조적 태도
09 냉소적 태도
10 수미상관
11 선경후정

DAY16

- 01 입체적 구성
02 방백
03 독백
04 전지적 작가
05 서술, 해학
06 해설,
 지시문/지문,
 대사
07 평면적 구성
08 곰살궂
09 매양
10 웅숭그린

DAY17

- 01 관점
02 설득
03 마이동풍
04 청산유수
05 ㉠
06 ㉣
07 ㉡
08 ㉢
09 함구
10 의사소통
11 관계 중심
12 비속어
13 두름

- 14 쾌
15 씹

DAY18

- 01 ④
02 ①
03 ③
04 ⑤
05 길도우미
06 쪽지
07 원작 재구성
08 ㉢
09 ㉡
10 ㉠
11 선정
12 활용
13 밀접
14 비언어적
15 준언어적
16 비언어적

DAY19

- 01 교양, 서울
02 자음/당소리
03 이중 모음
04 단일어, 복합어
05 어간, 예뻐-
06 형식 형태소, -고
07 파생어, 구경꾼
08 ㅌ, ㅇ, ㅍ, ㅈ
09 기침, 헛-
10 크-, -기
11 밤, 상, 위, 오르-,
 상추, 싱싱하-
12 ⑤
13 ④
14 ③
15 ②

DAY20

- 01 음운
02 탈락
03 모음 조화
04 교체
05 첨가
06 축약
07 탈락
08 ㉠
09 ㉢
10 ㉡
11 거센소리되기
12 된소리되기
13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14 ①
15 ③
16 ⑤
17 ④

DAY21

- 01 실용 정신
02 자주 정신
03 애민 정신
04 화자, 청자
05 발화
06 ㉠
07 이, 저, 그것
08 상형
09 합성
10 ②
11 ①
12 ③

예	월	고	요	키	통	붕	진	계	해	대	치
당	원	흠	갈	수	사	속	량	으	키	불	조
문	드	성	없	되	지	하	사	입	면	양	편
황	속	이	두	팔	다	정	참	화	재	체	적
자	이	인	싸	색	적	니	합	내	우	외	환
서	준	공	용	억	있	기	요	찰	유	행	비
전	청	절	효	양	간	멸	종	항	당	간	평
회	상	과	러	곡	없	안	목	대	굴	는	생
불	논	제	더	공	차	롭	덩	사	돌	태	산
과	인	견	의	동	분	쟁	과	보	게	형	혹
울	스	과	잉	체	채	준	호	너	억	통	성
효	과	적	편	젠	리	도	훈	분	투	하	다

- (1) 공동체 (2) 고갈되다 (3) 비평 (4) 계량하다 (5) 분투하다 (6) 내우외환 (7) 자서전 (8) 논제 (9) 안목 (10) 인용

예	설	고	요	키	통	붕	진	계	해	대	통
당	원	의	갈	수	사	속	아	으	학	불	솔
문	드	성	법	되	지	리	사	입	면	양	력
만	물	인	두	팔	다	정	참	화	재	체	적
자	일	침	싸	색	적	니	합	금	케	팅	디
서	준	공	단	역	있	기	요	찰	뜨	행	비
전	청	절	효	력	간	멸	종	항	당	다	평
회	상	과	러	히	없	안	목	대	굴	는	생
불	논	토	더	도	차	허	탕	사	돌	태	산
과	박	견	원	시	분	쟁	과	보	게	형	혹
이	스	외	잉	화	채	준	호	너	억	팅	성
효	과	적	편	젠	링	도	아	물	거	리	다

- (1) 만물 (2) 아리다 (3) 역력히 (4) 아물거리다 (5) 통솔력 (6) 토박이 (7) 설의법 (8) 해학 (9) 굼뜨다 (10) 허탕

